

컴퓨터·정보기술(CAC) 관련 분야 인증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약체((가칭)서울 어코드) 추진 배경 및 현황



김 성 조

서울 어코드 설립추진실무위원장
sjkim@cau.ac.k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수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산학 박사
(현)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평가센터 소장

I. 추진 배경

CAC 다자간 국제협약체(가칭 ‘Seoul Accord’)란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있는 EAC(Engineering Accreditation Commission, 공학인증) 관련 국제협약체인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와 같이 각 나라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학력의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y)과 참가 회원국 내에서는 국가 구별 없이 서로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하는 국가들 간의 약속이다.

다자간 국제협약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수준에 대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 합의 (여기서 교육수준은 기존의 교육제도 대신 졸업생의 능력을 말함)
- 2) 합의한 국제수준의 교육을 준수함을 각 나라의 인증기구를 통해 보장하는 나라별 체제
- 3) 각 나라 대표인 인증기구가 자국 내에서 모든 회원국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 전공 졸업생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제도 정비
- 4) 각 나라의 인증기구들이 모여 규정 등을 합의하고 다자간 국제협약체 창설

21세기 고도 경쟁의 지식기반 기술사회에서 국가적 생존과 직결되는 공학 분야의 국제간 상호인정은 엔지니어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EMF(Engineers Mobility Forum)는 ‘워싱턴 어코드에서 인정한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질이 보증된 교육을 받았을 것’을 국제 기술사 제도의 기술사 표준 자격의 첫 번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화 되어가는 관련 산업체의 인력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학교육수준 개선 및 졸업생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Global Standard) 준용의 필요성 또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CAC 다자간 국제협약체를 추진하게 된 필요성 및 배경은 아래와 같다.

- 1) 글로벌화 되어가는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급 요구에 대응하고, 향후 컴퓨터·정보기술 엔지니어들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 2)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수준 및 학문수준을 개선하고 전공 졸업생의 자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3)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전공 졸업생의 배출을 통해 국내 관련 기업의 국제 진출과 경쟁력 향상
- 4) 국내에서 CAC 인증을 지속하고,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졸업생에 대한 혜택 부여 및 해외 진출과 국제

컴퓨터·정보기술(CAC) 관련 분야 인증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약체((가칭)서울 어코드) 추진 배경 및 현황

적 교류 증진 지원

- 5) 현재 공학사를 수여하는 공학 분야에 대한 다자간 국제협약체로서 워싱턴 어코드가 1989년부터 활동 중이나 EAC (Engineering Accreditation Commission) 에서 인증을 받은 엔지니어에 대해서만 국가 간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어,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에는 이러한 다자간 국제 협약이 없음
- 6) WTO, FTA 등의 체제하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인력 진입을 통제
- 7) 컴퓨터·정보기술 분야 공학교육의 국제표준과 엔지니어의 국제교류를 우리나라가 선도(leading) 함
- 8) IT 강국으로서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 회원국 내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하는 국가들 간의 CAC 국제협약체를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

이러한 국제협약체 신설을 위해서 사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1) 국내 관련 커뮤니티(관련 전문학회, 산업체, 교육기관, 정부기관, 인증기구)들 간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 2) 대표성, 정당성이 확보된 다자간 국제협약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추진기구 설립
- 3) 다른 나라들의 관심 확인
- 4)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II. 추진방안

II.1 관련 조직

CAC 관련 국제협약체 신설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 CAC 관련 다자간 국제협약체 추진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상징적인 상위 민간기구로서 추진위원회와 실제 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CAC 다자간 국제협약체 설립을 위한 최종심의 및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은 관계, 학계, 산업체 및 인증기구를 대표하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명단은 <표1>과 같다.

실무위원회는 다자간 국제협약체 설립을 위한 실무 활동기구로서 위원으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정보과학회/한국정보처리학회 등 관련 학회, 산업체 등을 대표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15인과 자문단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상세한 명단은 <표2>와 같다.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양승택	동명대학교	총장
서남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신배	(주)SK텔레콤	대표이사
김인	삼성 SDS(주)	대표이사
신재철	(주)LG CNS	대표이사
전진옥	(주)비트컴퓨터	대표이사
김병국	(주)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김범수	NHN(주)	대표이사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홍의석	한국공학교육인증원수석부	원장
황규영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김병기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 표 1. 추진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기관	직위
김성조	중앙대 교수	위원장
권장우	IITA 인력양성사업단 단장	위원
이종만	IITA 인력기획팀 팀장	위원
윤우영	고려대 교수	위원
손소영	연세대 교수	위원
류철	동국대 교수	위원
홍원화	경북대 교수	위원
김정수	홍익대 교수	위원
김관주	홍익대 교수	위원
김복기	광운대 교수	위원
장준호	상명대 교수	위원
한선영	건국대 교수	위원
이강우	동국대 교수	위원
이정배	선문대 교수	위원
김기천	건국대 교수	위원
김동윤	아주대 교수	자문단
권오양	인하대 교수	자문단
이정구	정통부 지식정보산업팀 팀장	자문단
곽종철	IITA 소프트웨어분야 PM	자문단

▲ 표 2. 실무위원회 명단

II.2 추진 단계

단계별 계획과 중간 점검을 위한 milestone을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 그림 1 CAC 관련 국제협의체 설립을 위한 Milestone

위에서 설명한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22일 추진위원회가 양승택 동명대학교 총장과 박찬모 한국공학교육인증원(전)원장을 공동위원장(현재는 서남표 KAIST 총장)으로 하여 발족하였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서울 어코드 설립을 위해 관련 국가로부터 의견 수렴 및 조율과 이행 로드맵 작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2007년 11월 5~6일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며, 이의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지난 2007년 7월 10일에 발족하여 활동 중이다.

이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각 나라의 CAC 관련 인증 기구, 활동, 제도 등을 소개

- 2)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채택 및 워킹 그룹 결성을 통해 각 나라별 인증 제도 및 기구 정비, 인증을 위한 협약체 규정 제정 및 구축, 협약체 출범을 위한 각 나라별 준비사항과 이행시기 등을 약속

이러한 워킹 그룹의 활동을 통해 심포지엄 참가국은 2008년도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고, 늦어도 2009년 초반까지 다자간 국제협의체를 새로운 어코드로 출범시키고 회원 국가 간 상호인증을 개시할 예정이다.

III. 기대효과 및 요약

CAC 관련 국제협의체 설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분야 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학

- ◆ 외부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그 결과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음
- ◆ 인증 받은 프로그램 졸업생에게 국가 간의 인증이라는 차별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 국내 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CAC 인증제를 국제협의체를 통해 보다 성숙·확산시킬 수 있음

2)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전공자

- ◆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인증을 통해 소위 '유사' 전공자와 구별될 수 있어, 취업과 자기계발에 유리함
- ◆ 다자간 국제협의체를 통해 다른 나라로의 취업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제교류 및 해외취업에 유리함

3) 산업계

- ◆ 인증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음
- ◆ 고용주로서 능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
- ◆ 외국 진출시 해당국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고용을

통해 국내 졸업자와 자질의 동등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4) 정부

- ◆ 관련 분야 졸업생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IT강국/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음
- ◆ FTA, WTO 등의 확대 시 발생할 수도 있는 교육개방에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분야 인력의 국제 교류가 앞으로 크게 증대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능력을 상호 보장하고 수준을 유지하며 교류를 증대하기 위한 국가 간 상호인정이 요구된다. 현재 EAC를 통해 인증을 받은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워싱턴 어코드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경우는 워싱턴 어코드에 해당하는 적당한 기구와 기준이 없다. 이를 위해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어코드 발족이 요구되며, 어코드를 발족하기 위한 수순으로 우선 각 나라의 이 분

야에 대한 교육제도, 인증제도, 인증기구, 인증대상 분야, 자격증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정보기술 분야 인증을 위한 어코드” 설립을 목표로 2007년 11월 5-6일에 걸쳐 개최되는 국제 심포지엄의 결과로서 어코드 창립을 위해 요구되는 각 참가국 내의 인증제도 정비, 새로운 어코드의 비전, 규정 및 절차(rules & procedures),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워킹 그룹 활동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 서울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컴퓨터·정보기술 분야는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문분야 중의 하나로서 교육 표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국제적인 협의회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T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협약체 추진을 주도함으로써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명실 공히 IT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